



해외 금융포용 동향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뜻함
 - 금융포용은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 반대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소외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 금융포용은 가계로 하여금 소비평탄화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가능케 하여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야기한 재무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후생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포용,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간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면서 금융정책당국자와 국제기준 관련 기관들도 금융포용을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와 함께 핵심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음
- 우리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혁신 과제로 삼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성 제고 및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금융포용 정책을 위해서는 면밀한 금융소비자 분석, 핀테크 기술의 신중한 활용, 고령층의 금융포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효과적인 금융포용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충분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한편 핀테크는 금융포용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정보 사용 동의권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고령층의 디지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실행된 금융포용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계획하는 정책은 실행 이전에 충분한 소비자 분석과 사전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1. 배경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뜻함¹⁾
-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심화되어 왔는데, 2010년 이후 55개 국가가 금융포용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60개 이상의 국가가 금융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도입했거나 개발 중에 있음²⁾
 -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OECD 등을 중심으로 금융포용 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G20도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FIAP: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을 인준 하였음
 - 동 액션플랜에 따라 G20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금융포용 파트너십(GPFI)이 출범됨³⁾
- 우리정부도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⁴⁾
 - 금융감독원도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 경감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⁵⁾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의 대출접근성을 개선할 것임을 밝힘⁶⁾
- 본고는 해외 금융포용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효과적 금융포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1) "Financial inclusion means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useful and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their needs - transactions, payments, savings, credit and insurance - delivered in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way.";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

2) <http://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1>

3) GPFI는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약자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5),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3. 26),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3),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2. 금융포용의 정의와 필요성



- 금융포용이 자신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함
 - 금융소외라는 용어는 은행지점 폐쇄로 인해 은행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한 지리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⁷⁾, 이후 특정 사회계층이 지급 서비스나 은행 서비스, 대출, 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증가함
 -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금융소외는 주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갖는 상태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함⁸⁾
- 금융포용은 가계로 하여금 소비평탄화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가능케 하여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야기한 재무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후생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자산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키울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
- 한편 금융포용,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간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포용은 금융발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됨⁹⁾
 - 금융정책당국자와 국제기준 관련 기관들도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와 함께 금융포용을 핵심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음

7) Leyshon, A. and N. Thrift(1993), "The restructuring of the U.K.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1990s: a reversal of fortune?", *Journal of Rural Studies*, 9 (3), pp. 223~241

8) Kempson and Whyley(1999), *Kept out or opted out?: Understanding and combating financial exclusion*, the Policy Press

9) Beck, Demirguc-Kunt, and Levine(2007),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s Growth*, 12 (1)

3. 해외 금융포용 관련 동향



가. 금융소비자 분석

- 효과적인 금융포용 정책을 위해서는 금융소외 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더불어 금융소외 정도, 양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영국의 영업행위 감독기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참고할 만함
 - 금융소외는 어떤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소외인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접근은 가능하지만 장애요소가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¹⁰⁾
- FCA는 소매금융시장의 소비자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2017 Financial Lives Survey라는 금융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¹¹⁾
 - 동 설문조사는 영국 13,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이며 2017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실시됨
 - FCA는 소비자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방법을 결정할 때 동 조사결과를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함
- 동 설문조사는 잠재적 취약성(Potential Vulner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생활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은 경우에 잠재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정의함
 - 잠재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낮은 금융 회복력, 실직이나 이혼 등 최근 발생한 부정적 충격의 발생, 낮은 금융역량,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건강상태 등임

10) European Commission(2008), *Financial Services Provis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Exclusion*

11) FCA(2017), *Understanding the financial lives of UK adults*

〈표 1〉 잠재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구분	내용	설문대상
금융회복력	가계소득의 주 원천을 잃는 경우, 가계가 대출이나 친구 또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1주일 미만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음	모든 성인
	고지대금 납부나 대출상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지난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이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납부 등이 연체되었음	모든 성인
	매달 50파운드 미만의 담보대출 상환금액 또는 월세 지불액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고 있거나,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성인
	은퇴 이후에 일상생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은퇴한 성인
	지속적으로 초과인출하거나,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초과인출을 함	지난 12개월 동안 당좌대월 약정을 사용한 적이 있고 일일계좌를 갖고 있는 성인
파급효과가 큰 부정적 생애사건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나 이상의 다음 사건들을 경험했음: 실직 또는 정리해고, 타의에 의한 단축근무, 파산, 별거, 이혼, 심각한 사고나 질병,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가까운 가족구성원의 주요 간병에 대한 의무	모든 성인
금융역량	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0에서 10사이로 선택할 경우, 점수가 0점에서 3점 사이인 경우	모든 성인
	재무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을 0에서 10사이로 선택할 경우, 점수가 0점에서 3점 사이인 경우	모든 성인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한, 나는 자신감 있고 요령 있는 소비자이다’라는 문장을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	모든 성인
건강상태	건강상태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함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이 하나 이상 있는 성인

자료: FCA(2017), *Understanding the financial lives of UK adults*

■ 동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금융행태와 연령, 소득, 성별, 주거지역, 건강상태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세부집단의 특성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도울 수 있음

- 금융소외 여부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사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소외를 경험하는 소비자의 연령, 소득, 성별, 주거지역,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특성과 금융소외 간의 상관관계, 세부집단별 금융행태 분석도 가능함

나. 디지털 기술과 금융포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금융접근을 가능케 하고, 지불 가능한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저축, 송금, 지급, 대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포용을 가속화하고 있음¹²⁾
 - Global Findex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세계 7억여 명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주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음
- 한편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가능해진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¹³⁾
 - 미국의 Grameen America는 모바일장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환 능력 평가, 후속 대출 결정 및 창업 컨설팅 등을 하고 있음
 - Grameen America는 저소득 여성과 이민자가 대출, 훈련을 통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미소금융기관임
 - 태국의 SCB Abacus는 전통적인 신용등급 이외의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언더라이팅 기법을 사용하여 제한된 신용이력을 가진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¹⁴⁾

다. 고령화와 금융포용

- OECD와 G20는 올해 3월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령화와 금융포용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 (Fukuoka Policy Priorities for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 초안을 마련하였음
 - 동 초안은 고령자의 금융역량 강화가 저축증가, 노령기 빈곤 방지, 생애 재무계획 개선, 세대 간 불평등 개선 등을 통해서 금융체계 안정에 기여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 최종본은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GPFI 전체회의 및 G20 장관·총재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12) GPFI(2017. 7)

13) Loufield, Ferenzy, and Johnson(2018),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 with New Data*.

14) SCB Abacus는 Siam Commercial Bank의 데이터분석 자회사로서 디지털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함

〈표 2〉 고령화와 금융포용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 초안

과제	내용
데이터와 증거의 사용	어떠한 정책이 효과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증거를 사용
필수 기술의 업데이트 -디지털 및 금융지식 강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생애금융계획을 지원	장기 계획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
주문제작 -다양한 고령자의 필요에 대응	고령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혁신 -포용적 기술을 활용	금융상품 개발, 소비자보호, 금융교육 제공
보호 -고령자를 겨냥한 금융학대나 사기에 대응	고령자가 학대나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사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장려 -다부문적 접근	금융포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과 협력
주요 대상에 집중 -취약성에 대응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는 집단의 필요를 고려할 것

자료: OECD and the G20 Japanese Presidency for the GPF(2019), *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

■ 동 우선과제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아해력 제고 교육이나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그러나 생체정보인증방식, 음성명령, 받아쓰기 실행 기술 등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금융포용을 위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특성이 다른 개별 고령집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포용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소매, 통신, 여가, 건강, 교육 등 비금융 부문, 공적, 사적,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3. 시사점



- **우리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혁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음**
 - 금융혁신 4대 추진전략에는 금융부문 쇄신, 경쟁촉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이 포함됨¹⁵⁾
 -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서 연체발생 사전 예방, 연체로 인한 부담 최소화,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 지원을 추진했으며,¹⁶⁾¹⁷⁾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개선을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보험을 도입하였음¹⁸⁾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심사에도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포용성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함¹⁹⁾
- **포용적 금융을 위한 조치들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성 제고 및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면밀한 금융소비자 분석이 필요함**
 - 효과적인 금융포용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충분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집적할 필요가 있으며, 동 데이터는 정책설계를 위한 분석과 정책도입 후 효과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핀테크는 금융포용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소비자정보사용동의권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2016 디지털 금융포용을 위한 G20 상위원칙」²⁰⁾도 8가지 원칙 중 디지털 금융포용 달성을 위한 혁신과 리스크의 균형, 디지털 금융포용을 가능케 하는 법적·규제적 체계 제공, 소비자 및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마련, 디지털 금융포용 진행상황의 추적 등을 포함하고 있음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15),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 18),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17)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2017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으로 마련됨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4. 23),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 3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20) 2016 G20 High-level Principles for Digital Financial Inclusion

- 아울러 고령층의 디지털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함
 -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금융서비스 내 디지털 기술의 융합속도를 고려할 때 고령층의 금융포용은 중요한 문제임
- 실행된 금융포용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계획하는 정책은 실행 이전에 충분한 소비자 분석과 사전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 실행된 정책의 효과분석은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장기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ri**